

企業內에서의 技術士集團의 形成

The Promotion of the grouping of inhouse
registered engineers(Gijutsushi) in various firms

技術士(電氣部門) 岡本邦彦

最近, 日本에서는 企業單位로의 技術士集團이 結成되고 있으나 今회는 그 中에서도 大規模綜合電機메이카의 (株)日立製作所內에서 發足된 「日立技術士會」에 스폿트를 맞추어 企業內技術士의 立場을 말하고자 한다.

1. 多部門에 걸친 技術士集團體로서

“企業內에서의 技術士의 活性化”에 대하여 日本技術士會는 여러가지 具體案이 實施되고 있으나 그러한 中에서도 요즘 企業單位로의 技術士 團體가 계속하여 생기게 되었고, 지난 4月 27日 에는 技術士의 一大集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日本大規模綜合電機메이카인 (株)日立製作所에서 『日立技術士會』가 發足되었다.

同會의 正會員은 約 80名 그 規模의 크기로도 그러하거나 機械部門(約 40%)을 비롯하여 電氣情報處理등 多部門에 걸쳐 構成되고 있는 점 이 同社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特色이며 今後의 成果도 크게 注目된다.

또한 設立總會는 同社本社빌딩에서 會員의 約 80%가 出席하여 開催되었는바 이것은 社內의 技術士가 全國各地에 散在하고 또한 第一線에서 活躍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하히 큰 關心을 보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2. 技術士라는 共通稱號下에 結束

이 『日立技術士會』結成을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要因이 刺戟이 되었으나 昨年, 仙臺에서 開催된 技術士全國大會의 行事中에 企業內技術士에 의한 先端複合技術研究의 發表가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各會社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그하나이다. 以來, 技術士를 더욱더 活用하여야

하겠다는 氣運이 急速하게 일제되었다.

또 (株)日立製作所에서는 이미 OB로써 各方面에서 活躍하고 있는 技術士가 많은바 이러한 사람들이 무언가會를 만듬이 어떨까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日立技術士會』의 結成이 實現되게 되었다.

3. 企業內技術士活動에 새로운 地平을 열다

同會는 다음의 세가지 點을 活動의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① 社內技術士의 相互研鑽 技術士라는 資格을 살리기 위해서도 항상 새로운 技術吸收에 힘쓰며 또한 專門外의 技術分野에도 많이 접촉할 機會를 갖는다.

② 後進의 指導等を 통해 業務에 積極적으로 寄與, 技術士補制度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의 自己啓發의 機會로 活用한다.

③ 社會에의 技術還元, 技術士全國大會의 行事學會·協會等에의 스태프의 派遣等を 積極적으로 한다.

또 當面의 活動으로서는 年 1회의 總會外에 理事會(年 2回), 企劃委員會(年 3回)를 定하고 장차는 會報의 發行, 名簿의 作成, 또한 技術士 技術士補兩試驗에의 受驗의 勸誘등을 한다.

會員은 社內技術士인 正會員外에 約 10名의 特別會員, 數名의 客員으로 構成된다. 그중 特別會員은 소위 OB 技術士이고, 今後의 調査가 진척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 豫想된다.

어떻든 『日立技術士會』가 內外의 技術者의 活動에 주는 影響은 대단히 크고, 또한 今後의 企業內技術士活動에 새로운 地平을 열 것이라고 期待된다.